
한국 다문화 가정의 언어사용과 다문화 수용 양상

고혜정*

Language 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A case study of Korea

Hye-Jung Ko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 영화 <방가?방가!>, <완득이>를 통해서 얻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양상과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가정 속의 언어형태에 대해서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양상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 (2) 외국인이 쉽게 언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회와 문화에 있다는 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 속에서 속어나 은어와 같은 위상(位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언어와 특정 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3) 한국 다문화 가정 속의 언어형태는 주로 한국어로 사용되지만, “1 언어사용자(monolingual)”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2 언어 사용(bilingualism)”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청해형 2 언어 사용”의 언어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향후 한국 사회도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과 의사소통에 국한 시키는 한국어 교육이 아닌 다문화 가정을 위한 “2 언어 사용(bilingualism)”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한국영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국제 결혼이민자, 위상언어, 2 언어사용

Abstract I researched the acceptance attitude to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n peop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society through two Korean films, <Banga?Banga!> and <Wandugi>. And I researched the language form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way conducting the survey targeting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content and conclusion in shortly are as in the following. (1) The acceptance attitude to the multiculturalism of Korean people is somewhat positive in such a case having no interests among themselves. (2) It depends upon the society and the culture for the foreigners to come into contact and learn the language easily. It means well-adapted to the certain society for the foreign workers to use status-language such as slang and jargon in the society. And this is the good example to show 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guage and certain society. (3) The language form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s mainly Korean, but two languages are used in order to communicate well with monolingual. This is called ‘bilingualism’,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y research I think it is ‘listening comprehension type bilingualism’. From this time forward it is urgently needed to develop the contents in relation to multiculturalism and the ‘bilingualism’ educ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stead of the education of Korean being limited to communication itself in order to improve adaptiveness to multiculturalism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Korean films,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status-language, bilingualism

*관동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0월 4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10일

1. 서론

종래 단일민족을 표방했던 한국이 2000년대 이후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다문화 가정¹⁾의 자녀 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수가 2011년에 비하면 약 28만 명 정도가 증가하여 현재 140만 9,5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만 물론이고 일상생활 속에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상영된 한국영화로 <방가?방가!>와 <완득이> 등에서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방가?방가!>라는 영화 속 미장센²⁾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와 외국인들이 쉽게 한국어어를 접하며 습득할 수 있는 실증적인 언어 접근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완득이>라는 영화 속에서는 다문화 자녀의 불안한 성장기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학교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서 닫혀 있던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는 훈훈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런 영화들의 스토리나 캐릭터를 통해서 한국의 다문화 현상으로 연결 짓는 것은 다소 비약이라거나 과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일면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와 사회상을 텍스트와 이미지로 총합하여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한국 다문화 가정 속에서의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도 보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먼저,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 [2]를 들 수 있다. [2]에서는 한국인 2500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첫째, 한국인은 다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 이주민과의 실질적인 교류가 빈번한 경우는 다문화 수용을 오히려 저하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시장 중첩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 및 단순 노무직과 관련된 경우는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반면, 다문화 관련 교육 및 다문화 행사 참여에 경험이 많은 경우라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영화 속 장면을 통해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태도 및 사회상과 그 언어상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교육도 문제시 되고 있다. [1]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10명 중 3명이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표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외국인이라서 46.7%
- (2) 특별한 이유 없이 40.4%
- (3)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33.3%

여기서 필자는 집단 따돌림의 중요한 이유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이민자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사회와 문화적응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4]. [4]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중요 순위별 세부영역 및 내용 요소들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국어 언어능력에 관련된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요시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만을 위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모어 간섭 현상을 고려한 교재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구체화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1) 2006년5월1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일컬어 ‘다문화 가정’이라 하였다 [7].
 2) 미장센(Mise-en-Scène)은 프랑스어로 영상을 둘러싸는 프레임 속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화면구성과 같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형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실증적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표 1〉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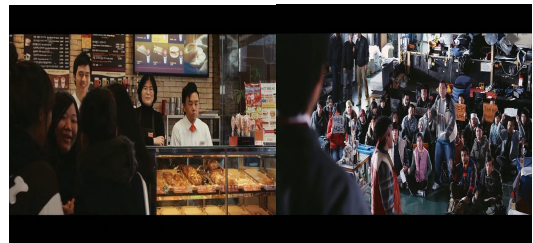
중요 순위	세부영역	내용 요소
1	실용한국어	실제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실용 한국어
2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학교 생활(학사일정에 근거한) 전반을 다룬 내용, 학교생활에서 일어나기 쉬운 문제 상황을 주로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3	교과 학습 언어능력	교과 학습에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교과 내용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내용 기반 교육)과 교과 학습을 위한 academic Korean Language 교육에 중점
4	한국문화 및 다문화 이해	한국문화의 이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 세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다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교육, 이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
5	표준화된 교육용어	
6	멘토의 도움이 되는 다양한 문제	
7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한국어	
8	표준화된 교수요목	
9	모국어 간섭 현상을 고려한 교재	
10	거주 목적, 학습자의 모국어 등을 고려하여 수준과 내용을 정함	
11	학습자 요구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12	보편타당한 한국의 사상 정리	

3.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양상

먼저, <방가?방가!>라는 영화 속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와 외모 지상주의가 낳은 한국 현대사회의 이슈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가슴 아픈 한국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예로서 <방가?방가!>의 주인공 ‘방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도 작고 동남아시아 쪽 외국인 외모인 탓으로 취직이 너무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다가 결국 부탄사람으로 위장 취업하게 되면서 생긴 이야기이다. 주인공 ‘방가’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과 같이 일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한국인 근로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거나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문제를 쟁점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공 ‘방가’는 [그림 2]의 장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편에 적극 나서 같이 시위하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는 한국인이어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거나 다문화 가정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양상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점은 [2]의 보고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 관련 미디어를 통해서 외국인 이주민과 한국인이 화합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는 경우나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에 적극적인 한국인의 경우라면, 다문화에 대한 수용 양상은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견해이다.



[그림 1] 청년실업문제 [그림 2] 근로자의 시위장면

이와 같이 한국인이 다문화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현상은 <완득이>라는 영화 속 스토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 제시하는 [그림 3]의 ‘완득이’의 가족은 키가 아주 작은 난장이 아버지와 혈연관계가 아닌 장애인 삼촌, 그리고 헤어져 살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이다.



[그림 3] 완득이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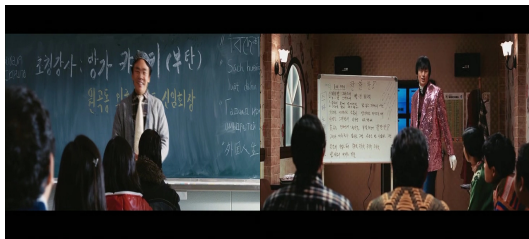
<완득이>라는 영화 속의 다문화 가족은 너무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 가운데, 주인공 ‘완득이’는 학교에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서 한 번도 본적이 없던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와도 상봉을 하게 된다. 그 이후 ‘완득이’는 마음을 닫고 있던 세상과 소통을 나누게 되는 해피엔딩 스토리의 장면이 있다. 또한 이 영화 속에서는 교회라는 공간이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장소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영화 속 스토리는 최근 변모해 가는 한국 다문화사회의 일면이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미루어 짐작해 보면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 한국 다문화 사회와 언어

여기서는 한국 다문화 사회와 언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방가?방가!>의 영화장면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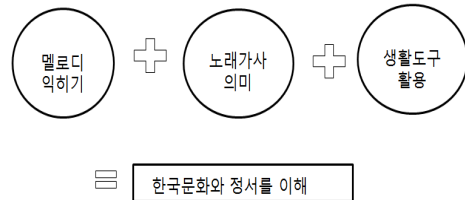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공 ‘방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초청강사로 나선다. 이때 같은 직업을 가진 부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생활을 하며 습득하게 된 속어(俗語)나 은어(隱語)와 같은 한국어에 대해서 묻고 배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속어나 은어와 같은 ‘위상(位相) 언어³⁾’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언어상과 사회상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4] 한국어 속어 교실

또한 [그림 5]는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주인공 방가의 친구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 전통가요 트로트⁴⁾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코믹한 장면이다. 이 노래 교실 장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한국어뿐 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도 절로 느껴지게 하는 대목이다.

한국 전통가요 노래 교실에서는 멜로디를 먼저 익히게 한 다음, 노래 가사의 의미를 일상생활 도구로 최대한 응용 활용하여 어려운 뜻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코믹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동시에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이해시키는 과정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제 2 언어 및 중간 언어⁵⁾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응용시켜 나간다면 목표언어를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교수법⁶⁾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교사가 목표언어로 지시를 하고 그 동작을 해 보인 후, 학습자는 교사의 지시대로 동작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그 목표언어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의 교수법인 것이다.

5. 다문화 가정의 언어사용 양상

5.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속의 언어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 7월1일부터 약 15일간 강원도 거주 국제결혼이민자 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한국거주 기간은 15년에서 20년 이상이 4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년에서 15년 미만

3) 이것은 남녀, 연령, 직업, 계층 등의 차이에 따라 쓰이는 어휘가 다른 것을 말한다. 일본어의 예로 일반적인 ‘물(水)’이라는 말을 식당에서는 주로 ‘냉수(おひや)’로 구분하여 쓰이는 경우이다.
 4) 한국 대중가요로 일본의 엔카(演歌)와 같은 음악을 말한다.
 5) Selinker는 학습자의 제 2 언어능력의 총체를 “중간 언어 (Interlanguage)”라고 부르고 있다 [6].
 6) 이와 유사한 교수법으로는 미국 심리학자 James J. Asher에 의해 개발된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 : TPR)’을 들 수 있다.

이 25%정도였다. 그리고 출신 국가별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베트남 12%, 필리핀 8%, 우즈베키스탄 7%, 중국 5%, 태국, 러시아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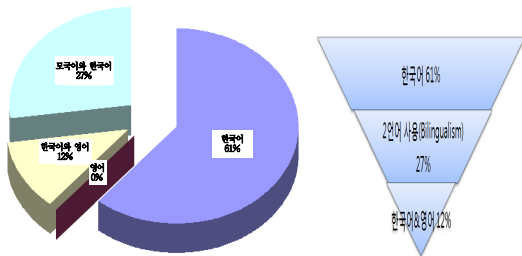
조사 내용은 <표 2>에 제시하는 10개의 항목으로 각 항목별 질문에 대해 답을 쓰도록 지시하였다.

<표 2> 설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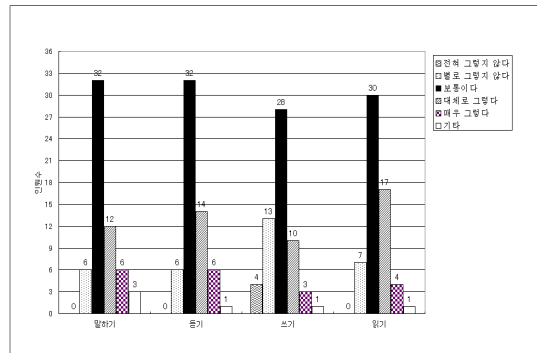
번호	내용
1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2	나의 한국어(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3	내 남편은 내 모어를 배우고자 노력합니까?
4	남편이 내 모어(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어느 정도 할 줄 압니까?
5	내 자녀에게도 한국어뿐 만 아니라, 내 모어도 함께 가르칩니까?
6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7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와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8	자녀가 나와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9	자녀와 남편이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10	자녀가 친척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5.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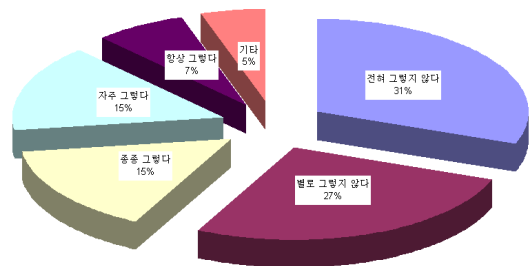
[그림 7]~[그림 11]은 5.1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내용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위는 백분율(%)과 인원수(명)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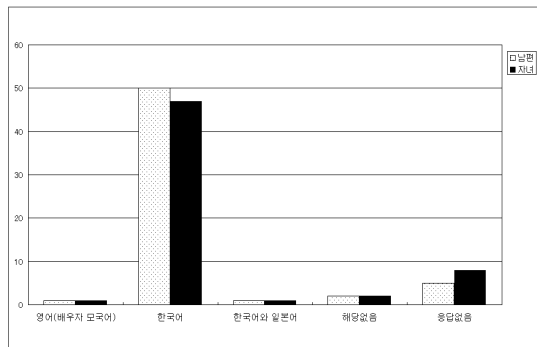
[그림 7] 의사소통 시 사용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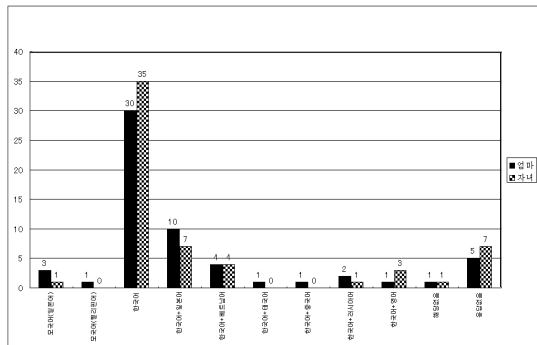
[그림 8] 결혼 이주민 여성의 한국어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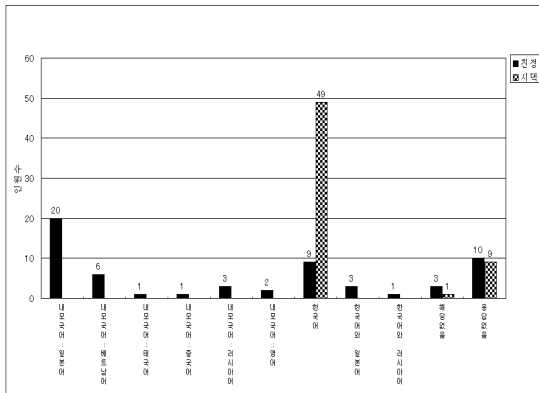
[그림 9] 남편의 내 모어 학습 노력정도



[그림 10] 자녀와 아버지(남편)와의 사용언어



[그림 11.1] 자녀와 어머니(본인)와의 사용언어



[그림 11.2] 자녀와 친척과의 사용언어

5.3 고찰

먼저,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민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한국어 사용이 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모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혼용하는 ‘2언어 사용(bilingualism)’ 비율이 27%였고, 또한 한국어와 영어 사용도 12% 정도로 나타났다. 즉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비율이 3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림 8]은 결혼 이주민 여성의 한국어 능력 정도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이다. “대체로 그렇다”는 항목 그래프에 주목하면, 읽기와 듣기 영역은 상대적으로 말하기와 쓰기 영역보다 다소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 영역 가운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쓰기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향은 [3]의 보고에서 말하기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다소 떨어진다는 결과와는 다른 경향이였다.

셋째, [그림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편이 자신의 모어에 대한 학습 노력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남편은 즉, “전혀 그렇지 않다” 31%와 “별로 그렇지 않다” 27%의 비율로 과반수이상의 한국인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모어를 학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점은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된 지적은 [2]에서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다문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용언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그림

10]과 [그림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시부모님과과의 대화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녀가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와는 달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적별로 2 가지 언어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친족들과 대화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는 내 모어로 사용하는 자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편 쪽 친족들과는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 다문화 가정에서의 주된 의사소통의 수단은 한국어지만, 개별적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다문화 자녀와 그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같은 친족들과의 대화에서는 ‘2 가지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청해형 바이링걸 (listening comprehension type bilingualism)의 언어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점은 앞에 지적한 말하기와 쓰기 영역보다는 읽기와 듣기 영역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어사용의 사례를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청해형 바이링걸 언어형태의 사례7)

화자	언어	청자	언어
어머니	한국어	자녀	한국어
자녀	일본어	어머니	일본어

한편,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자 [5]는 ‘2 언어 사용(bilingualism)’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native-like control of two language”

본 연구에서 말하는 2 언어 사용(bilingualism)은 [5]가 말하는 유창한 모어와 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어 수준으로 유창하게 2 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결혼 이주민 여성이나 다문화 자녀도 있지만, 한국 거주 기간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다문화 자녀의 경우는 각각의 ‘1 언어 사용자(monolingual)’ 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단순히 ‘2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을 하면 그 자녀도 한국어로 듣지만, 그 자녀가 말을 할 때는 일본어로 사용하고 그 어머니는 일본어로 듣게 되는 ‘청해형 바이링걸’의 언어형태를 의미한다.

6. 잠정적인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 속의 <방가?방가!>, <완득이>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 태도 및 언어와 다문화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 다문화 가정의 언어사용 실태를 국제 결혼이주여성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양상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다소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 (2) 외국인이 쉽게 언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회와 문화에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 속에서 속어나 은어와 같은 ‘위상 (位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언어와 특정사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 (3) 한국 다문화 가정 속의 사용 언어는 주로 한국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1 언어 사용자(mono lingual)’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 가지 언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해형 2 언어사용’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와 언어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향후 한국사회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제안 몇 가지를 언급해 둔다. 먼저 다문화와 관련된 재미 있는 소재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누구나가 접근 용이한 콘텐츠 개발과 의사소통에 국한시키는 한국어 교육이 아닌 다문화 가정을 위한 ‘2 언어 사용 (bilingualism)’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정원(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2] 안상수(2012). 국민 다문화 수용서 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5
- [3] 양옥경(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4] 오은순·권재기(2010).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내용 요소 탐색 : 학교체제 운영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12), 83-107.
- [5] Bloomfield, L.(1993).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6] 高見澤孟監修(2004).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1. 東京: ask.
- [7]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 가정 풀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검색자료 2006.5.1 발표내용)

고 혜 정



- 1994년 8월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문학석사)
- 2002년 3월 : 일본 쓰쿠바대학 일반언어학(언어학석사)
- 2005년 12월 : 일본 쓰쿠바대학 일반언어학(언어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관동대학교 일

어일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언어학, 음성학, 언어지리학
- E-Mail : khj0226@kd.ac.kr